

## 금속노조 첫 ‘이주노동자 조합원의 날’ 열어

노조 이주노동자 조합원 136명 ... “노조할 권리 확대·조선 이주노동자 조직화 실천할 것”

언어와 피부 색, 사는 동네, 사업장, 하는 일이 다르지만,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장은 행사를 시작하며 “자본은 값싼 노동자들이 필요해서 많이 데려오려 하지만, 우리는 노동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노동자다”라며 “우

금속노조가 10월 16일 경주에서 ‘금속노조 1회 이주노동자 조합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노조 경주지부, 광주전남지부, 부산양산지부 조합원인 여섯 나라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처음 만난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은 몸으로 표현하는 자기소개, 열한 개 나라 언어로 번역한 ‘금속노조가’를 함께 부르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소속감과 동지애를 확인했다.

노조는 이어 ‘노동조합과 금속노조의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했다. 이주노동자로서 대상이 아닌 주체로 함께 만드는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높였

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가 2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온갖 차별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며 “국적과 성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이 금속노조의 정신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오늘은 금속노조에 역사적인 날이다. 오늘 계기로 금속노조와 이주노동자가 차별철폐를 넘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전진하자”라고 행사 축하의 말을 전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

리는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만국의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노동조합으로 함께하자”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첫 이주노동자 조합원의 날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는 이주노동자 기본교육 시행, 조선산업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른 적극적인 조직화를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차별철폐에 관한 실천 의지와 제도를 강령과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2007년 대구지부에 첫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가입했고, 현재 136명의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함께하고 있다.

# “도보 투쟁 완수 결의로 위장 청산 투쟁 승리할 것”

한국와이퍼 청산 철회 3박 4일 행진 ... “외투 자본과 계열사 동시 특별감독하라”

“10월 5일 온다 요시노리 덴소코리아 대표이사를 국정감사장에 세웠고, 24일 한국와이퍼는 국정감사 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저는 참고인으로 나간다.”

최윤미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장이 10월 14일 오후 ‘한국와이퍼 청산철회, 외국투자자본 규제, 헌법 유린 대체생산 중단, 덴소 규탄 뚜벅이 도보 행진’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한 국회 앞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한국와이퍼 분회 등 150여 명의 조합원은 10월 11일 덴소코리아 화성공장에서 출발해 국회로 향하는 ‘덴소 규탄 뚜벅이 도보 행진 투쟁’을 벌였다.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대는 50대 전후반이다. 3박 4일간 약 90km를 걸으며 발에 물집이 터지고 무릎을 절뚝거리며 다리를 끌면서 국회까지 완주했다.

최윤미 분회장은 “작은 사업장 문제로 사측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내는 게 쉽지 않았다”라며 “9월 19일 MBC 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기자회견, 10월 5일 덴소코리아 국정감사, 24일 한국와이퍼 노·사 국정감사로 한국와이퍼에서 일어난 위장 청산 등 부당노동행위를 낱알이 밝힐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윤미 분회장은 “투쟁 중 가장 힘들 때 달려와 준 금속노조 동지와 민주노총 동지들이 없었다면 단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도보 투쟁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최윤미 분회장은 “한국와이퍼분회는 도보 투쟁을 완수한 결의를 모아 새로운 역사를 열어보려 한다”라면서 현대자동차-덴소코리아-한국와이퍼가 공모해 저지른 단협 위반, 불법 대체생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최윤미 분회장은 “특수 거래 관계자인 외투 자본과 계열사를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용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다”라며 “한국와이퍼 건으로 선례가 생기면 외투 자본과 계열사의 횡포를 동시에 적발해 실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게이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투기업은 이름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다”라면서 “한국 이름을 단 공장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외투 자본의 횡포로 길거리에 내몰리는데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규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위장 청산에

맞선 한국와이퍼 동지들이 승리하는 76만 명 외투기업 노동자의 승리라고 봐야 한다”라며 “정의로운 투쟁이다. 금속노조가 투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덴소와 한국와이퍼가 신차수주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청산을 준비하면서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고 2020년, 2021년 투쟁으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물량 확보 방식으로 충고용 보장한다’였지만, 덴소와 한국와이퍼는 약속을 어기고 2022년 7월 청산계획을 발표하고 강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덴소코리아가 수년 전부터 고의 적자구조를 만들어 회사 청산을 준비했고, 현대자동차-덴소코리아-한국와이퍼가 공모해 노조 파업 시 대체생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는 문건이 드러났다.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면 사장과 부장에게 성과급을 준다는 ‘레인보우 인센티브’라는 한국와이퍼 내부 문건도 확인했다.